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구약적 해석 연구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방법을 통한 지도자 교육교재 개발*

박경식(목원대)

1. 시작하는 글

고대 근동의 전염병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14세기에 유럽에서 대유행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흑사병 그리고 2000년대에 계속해서 발생한 전염병들(SARS-CoV, MERS-CoV, Ebola, Zika, Avian, and Swine influenza epidemics)의 대유행은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19, 약칭 COVID-19 혹은 코로나19)는 2019년 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48781)

1 전염병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Leslie Reperant and Albert Osterhaus, "AIDS, Avian flu, SARS, MERS, Ebola, Zika... what next?", *Vaccine* 35 (2017), 4470-4474; 마크 호닉스바움, 「대유행병의 시대: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제효영 역), (서울: 커넥팅, 2020). 원저 Mark Honigsbaum, *The Pandemic Century: A History of Global Contagion from the Spanish Flu to Covid-19* (London: W.H. Allen, 2020).

견되어 WHO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며,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뉴노멀과 같은 신조어는 그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듯이 전염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금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롭게 변화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할 것을 반영하고 있다.²

국가에서 위험 상황에 따라 발표하는 코로나 생활 방역 단계는 그 경중에 따라 모든 인류의 활동을 제어하여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와 미래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계속 잃어가고 있어 고통스럽다는 신음이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 고통으로 또 죽음으로 이르고 있고, 전염력이 강한 이 질병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2차 전염이 가능하므로 피차간에 극도의 단절, 고립, 격리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을 완전하게 제어할 안전한 백신과 환자를 치료할 치료제를 숨 가쁘게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든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변화의 양상이 기독교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실로 크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교회 공동체의 정규 예배와 소모임 그리고 심방, 선교, 행사, 활동 등의 모든 대면 모임이 제약받으면서 기독교 신앙 교

2 신조어 중 언택트라는 표현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은화, “비대면(untact), 미국인들도 사용할까?”, <http://www.ne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15>, (2020,12,18.).

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기독교 상황에 대하여 목회 데이터연구소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실천적 신앙생활에 대한 수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록을 보이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³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논하면서 시작된 신앙적 해석이 신앙공동체 사이에 반목을 야기하고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⁴ 그러므로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긴급한 성서적 해석은 기독교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지도자들의 올바른 성서적 목양과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적 해석과 삶의 적용에 필수적이다.⁵

3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며 특별히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에 아예 주일 예배드리지 않은 개신교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CBS 뉴스와 목회&데이터 자료 접속은 다음을 참고하라. 넘버즈,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http://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ews_data&wr_id=60, (2021.01.10.).

4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교한 목사가 한 달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연합뉴스에 실린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연합뉴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 설교한 목사, 한달 후 확진 판정”, <https://www.youtube.com/watch?v=0sb1uZK4eR4>, (2021.2.20.);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지에 대한 논쟁은 다음을 참조하라. 정지홍,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심판 아니다. 지금은 겸손을 배워야 할 때”, <http://www.christianreview.com.au/6735>, (2020.8.15.).

5 2020년도 9월에 열린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포럼에서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성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론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민하였다. 이 모임에 참석한 많은 성서학자가 종교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성서 연구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깊은 성서 연구를 통한 대안 마련에 모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Mark Brett and Susan Hynen, “Biblical Studies in a Pandemic”, *JBL* 139 no. 3 (2020), 597-599. 또한, 나누었던 많은 연구는 팬데믹 전염병 상황 가운데 필요한 성서 해석을 조명하는 시간이 되었다. 참고해야 할 전염병 구약 해석학 연구는 워런 로버트슨(Warren Robertson)의 고대 이스라엘의 자연재해 이해에 관한 연구와 윌리엄스(Williams)의 오래되었지만, 전염병과 기아와 전쟁에 대한 연결성을 중심으로 건강과 번영에 대한 이해를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Warren Robertson, *Drought, Famine, Plague and Pestilence: Ancient Israel's Understandings of and Responses to Natural Catastrophes*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4); D. T. Williams, “The Sword, Famine and Pestilence: Expectation of Health and Prosperity in the Prophets”, *Old Testament Essays* 21 no.1 (1988), 1-19. 톰 라이트(Tom Wright)의 해석도 신중한 해석을 담고 있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서적 제안을 하고 있다. Tom Wright, *God and the Pandemic: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이 논문은 전염병에 대해 올바르게 건강한 성서적 이해 탐구를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육 교재 개발 제안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이 연구 주제의 세심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실천적 적용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전염병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교육적 자료를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다루는 전염병의 종류를 파악하고 전염도의 상태를 파악한다. 또한 전염병이 어떻게 발병하였는지,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른 규례가 있었는지 등을 심층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본 연구의 성서 자료의 범위는 자연적인 전염병으로 등장하여 병에 대한 가능성과 치료에 대한 성경 구절인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나병에 대한 대처방안 규례와 민수기 16장 46-48절, 25장 8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열병 본문을 주요하게 비교 분석하고, 추가로 자연현상으로서의 전염병에 대한 시편 91편과 불평등에 대한 본문 연구 결과를 비평한다.

2.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동안의 코로나19에 대한 해석은 아쉽게도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 혹은 위드 코로나(With-Corona)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현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대처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까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어떻게 이해할까?”의 문제

Coronavirus and Its Aftermath (Grand Rapids: Zondervan, 2020).

는 미약하게 다룬다. 이러한 목회적 관심은 코로나19에 대한 구약 성서학적 해석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고, 이러한 성서적 해석의 부재는 결국 자유로운 주관적 개인적 해석에 따른 차이로 인한 공동체의 반목과 충돌을 야기하며, 잘못된 신학과 신관, 더 나아가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는 등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선행된 코로나19에 대한 구약적 이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은 작금의 죄에서 성도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징벌적 해석이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의 극심한 사태를 고민하며 출판된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에서 많은 학자가 초대 교회 당시 큰 위협이 되었던 흑사병을 예를 들면서 루터, 츠빙글리, 칼뱅, 불링거 등이 어떻게 전염병을 이해하고 다루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초대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훈련이라는 도식으로 전염병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⁶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도 크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가 마치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된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같은 용어는 타문화 선교사역 공동체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중국인 성도를 다수 포함하는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초기에 성도들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⁷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중국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였고 교회에서도 중국 교민들을 바라보는 눈총이 따가웠

6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도서출판 다함, 2020), 118-203. 그 외에도 흑사병 창궐 당시의 기독교의 반응과 행동, 그리고 해석에 대하여 다음 도서들을 참고하라. 이상명 외,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서울: 동연, 2020).

7 최승현, “익산천광교회 안흥대 목사, 평소 ‘중국인 입국 금지 왜 안 하나’ 비판하며 현장 예배 지속”,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03> (2021.12.21.).

다. 이를 반대하기 위한 기독교의 반응도 다양하다. 이후 외국에서 입국하는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 입국자들도 격리 및 보호조치를 겪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대화를 의식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또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론과 저주론이 한동안 뜨겁게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교계의 파장이 심각하게 양분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처지에 놓였다.⁸

둘째,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기에는 인류를 향한 거국적 심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경우이다. 그래서 최순진은 전염병을 재난의 한 종류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이것이 죄의 결과인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고대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그는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의 기자들이 전염병을 궁극적으로 죄와 심판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현시대에 대입한다.⁹ 이는 훌륭한 실천적 해석이나 전염병에 대한 구약적 해석 즉 전염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후의 언약 성취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 시대적 평가 즉 전염병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셋째, 그저 지나가는 자연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자연적 재해 해석이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인류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지구의 생태학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무분별한 자원 사용과 오

8 장명성,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85> (2020.12.13.); 조성훈, “신종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 목사 설교에 교회도 비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012194641855&VNC_T (2021.2.12.); 권종술, “코로나19 확산은 하나님의 심판…일부 개신교 목사들 설교 통해 유연비어 유포”, <https://www.vop.co.kr/A00001470205.html> (2020.12.13.).

9 안명준 외, 윗글, 75.

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자원 오염, 병하 침수 등으로 인해 이제 인류는 재난을 겪게 될 것이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러한 생태학적 오염은 바이러스와 미생물 등의 바이오 생화학적 연결고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국 모든 불이익이나 위험은 인류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대응 방안을 깊게 연구 중이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학자들은 코로나19가 생태학적 변화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문제는 바이러스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게 계속 지속하는 문제로 인한 생각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권진구는 그의 논문에서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건이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전에는 현미경과 같은 과학의 발달이 부족하여 아주 작은 미생물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인류는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있고, 선조들의 잘못된 혹은 올바른 대응 사례를 보며 질병이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진노 혹은 징벌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영성에 집중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¹⁰ 또한 케네스 체르니(Kenneth Cherney)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역병 내러티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역병의 자연 발병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설명하였고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역병과 달리 자연 현상으로서의 역병을 뒷받침한다.¹¹ 임효명도 성서에 대한 생태 해석학의 세 가지 접근법을 설명하는데 성서 본래의 긍정적 의미를 살려 읽는 '회복적 읽기'와 성서 자체를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저항적 읽기' 그

10 권진구, "전염병, Covid-19, 그리고 기독교 영성", 「기독교교육논총」 63집 (2020년 9월), 65-89.

11 Kenneth A. Cherney, "The Plague Narrative (Exod 7:8-10:29): Structure, Source Criticism, and Naturalistic Explanations", *Wisconsin Lutheran Quarterly* 116 no. 2 (2019), 83-92.

리고 양면을 동시에 수용하는 ‘수정적 해석학’을 제시한다.¹² 이 가운데 저학적 읽기는 성서가 인간중심주의를 조장하였으며 자연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문제는 자연적 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라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캐서린 곤살레스(Catherine Gonzales)는 역병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역사를 나열하며 이교도는 전염병의 사태에서 행하지 않은 선교와 도움 사역을 기독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¹³ 잉 쟁(Ying Zhang)은 옴의 삶이 팬데믹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고통 중에도 교훈으로 배우는 것이 있음을 인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과 다양한 생물을 모두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최근 출판된 다양한 서적들은 대부분 이러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구약 주석적 연구 논문이 다룰 수 있는 깊이를 포함하지 못한 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방법론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⁵ 그러나 구약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한 전염병과 팬데믹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12 임효명, “생태 위기 시대에 성서 읽기-스마나의 야웨의 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372-376.

13 Catherine Gunsalus Gonzalez, “Christians’ Responses to Plagues: A Glimpse at the History”, *Journal for Preachers* 44 no. 1 (2020), 15-21.

14 Ying Zhang, “Reading the Book of Job in the Pandemic”, *JBL* 139 no. 3 (2020), 607-612.

15 코로나 시대를 염려하는 목회 신학적 도서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신형섭, 박재필, 김성중,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 교육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박경수, 이상익, 김정형,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소강석,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의 미래』 (서울: 쿠펜 출판사, 2020); 안명준 외,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다섯째, 이외에 다른 연구들은 좀 더 해석학적으로 범위를 넓힌 주제들이다. 서구권에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성서 해석학 연구의 접근은 불평등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며 급속히 성장하였다.¹⁶ 성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러 불평등의 모습들이 현시대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여 해석되며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른 성서적 읽기를 투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잭 히델고(Jacqueline Hidalgo)는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이 인종과 계급에 따라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래부터 사회적 문제였던 불평등이 훨씬 심화하였음을 지적한다.¹⁷ 그러므로 성서학적 연구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올바른 목소리와 지도력을 겸비하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존 골딩게이(John Goldingay)는 구약 성경의 전염병은 기아와 불임과 연결되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준다고 주장한다.¹⁹ 그는 형벌(chastisement)과 심판(judgment)의 차이를 역설하며 전염병의 주체에 대한 색다른 이해를 추구한다. 또한 레위기 19장과 잠언 25장에 나타나는 전염병 혹은 기아의 상황은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한다.²⁰ 즉 모든 인류가 어려운 처지에 놓

16 과거에 논의된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다시금 부각되었으며 마이클 허드슨의 고대 근동에서 빛과 청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어떠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는지를 조명하는 연구가 주목받았다.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New York: Norton, 2012); Michael Hudson and Marc Van de Meiroop, eds., *Debt and Economic Renewal in the Ancient Near East* (Baltimore: CDL, 2002).

17 Jacqueline M. Hidalgo, "Scripturalizing the Pandemic", *JBL* 139 no. 3 (2020), 625-634.

18 Roger S. Nam, "Biblical Studies, COVID-19, and Our Response to Growing Inequalit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9 no. 3 (2020), 601.

19 John Goldingay and Kathleen Scott Goldingay, "Thinking with the Old Testament about the pandemic", *Theology* 123 no. 3 (2020), 191-197.

20 율글, 197.

여있을 때 성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다. 또 홍성혁은 구약 시대의 병은 단순히 질병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그리고 신학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²¹ 병리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고대 시대에는 “병을 사회-문화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약성서 내의 질병은 죄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죄와 관련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나,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²² 특별히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병을 보내기도 하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병이란 결국 어떤 발병의 원인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3. 전염병의 주체에 대한 구약의 다양성 해석

1)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전염병

성경의 첫 전염병에 대한 구절은 창세기 12장 17절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다(וַיִּגְזֵן יְהוָה אֶת-פְּרִיעָה בְּנָעִים לְבָלָיִם)”에서 등장하며 ‘재앙’으로 번역되고 있는 네가(נָע)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온역’으로 번역되기도 한다.²³ 이 히브리어의 동사 어근은 נָע(나가)인데 의미는 ‘만지다’ 혹은 ‘치다’이며 성경에 약 228번이나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특

21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20 (2006), 125.

22 윗글, 143-144.

23 전염병을 출애굽기의 데베르(דִּבְעֵר)로 한정할 연구도 있으며, 김영옥은 불순중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염병과 언약의 저주로서의 전염병으로 나누기도 하나 결국 언약을 깨뜨려 받는 저주는 불순중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결국 데베르(דִּבְעֵר)의 두 가지 사용을 분류한 것에 그친다. 김영옥,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전염병(COVID-19)”, 『신학지남』 제87권 3집 (2020년 12월), 197-215.

징적으로 만지게 되는 행위를 통하여 부정하게 되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3절이나 26장 11절에서는 만지면 죽는 것(וְלֹא תִגְעוּ בּוֹ פְּרִי־תֵמָתוֹן)으로 설명하고, 창세기 20장 6절에는 만지면 범죄하게 되는 것(אֹתָהּ מִחֲשׂוֹלֵי עַלְכֶּן לֹא־נִתְחַדָּךְ לְגַנֵּעַ אֲלֵיהָ)으로, 레위기 11장 8절에서는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וּבְנִבְלָתָם לֹא תִגְעוּ שְׂמַיִם הֵם לָכֶ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능동적인 상태에서의 만지는 행위가 앞으로 부정이나 죄 혹은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나가’는 그 명사형으로서 행위의 결과인 재앙, 온역, 전염병, 피부병, 싸움 등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레위기 13-14장이나 열왕기하 15장 5절에는 이를 피부병으로 설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흉악한 범죄의 결과로서 생기는 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로와 관련된 재앙으로서의 전염병에 대해서 고든 웬햄(Gordon Wenham)은 이집트인들이 앓은 피부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²⁴

또 다른 주요한 단어는 출애굽기 5장 3절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한다(בְּחַרְבֹּ אוֹ בַּדָּבָר אֲנִי פֹגְעֵנּוּ בְּדָבָר)”에 나타나며 ‘전염병’이나 ‘온역’으로 번역되고 있는 데베르(דִּבְרָה)이다.²⁵ 영어 성경은 전염병을 뜻하는 plague나 pestilence로 표현되며, 즉 본문의 의미는 전염병이든 칼이든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죽음을 부르는 병은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징벌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⁶

이 두 가지 용어 וְנָגַע와 דִּבְרָה가 같이 사용될 때는 열왕기상 8장 37

24 Gordon Wenham, *Genesis 1-15* (WBC 1; Dallas: Word Books, 1987), 290.

25 데베르가 나타나는 자세한 본문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 (2021), 220-223.

26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 출애굽기·레위기 2』 (서울: 성서아카데미, 1999), 89.

절로서 본문 번역은 **דָּבַר**를 전염병으로 그리고 **נָנַע**를 재앙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דָּבַר**가 더 전염병에 가까운 용어임을 알게 된다.

(왕상 8:37)

רָעַב כִּי־יִהְיֶה אֲרִיז דָּבַר כִּי־יִהְיֶה שְׂדֵפוֹן יִרְקוּן אֲרֵבָה חָסִיל כִּי יִהְיֶה
כִּי יִצְרֶלוּ אִיבוֹ בְּאֲרִיז שְׁעָרָיו כָּל־נָנַע כָּל־מַחֲלָ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왕상 8:37)

솔로몬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며 여러 가지 간청을 드리는데 “만일”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31, 33, 35, 37절) 혹시나 있을 일에 대비하여 청유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간구(30, 31, 34, 36, 39, 42, 44, 48절)하고 있다. 이 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반절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는 **נָנַע**와 **דָּבַר**를 반복으로 혹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병렬로 이해할 때는 **נָנַע**와 **דָּבַר**를 서로 다른 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창세기, 출애굽기, 열왕기상 본문에서 히브리어 **נָנַע**와 **דָּבַר**는 재앙 또는 전염이 가능한 병으로 혼용하여 사용되며, 이 재앙이나 전염병을 발발시키는 주체는 전적으로 여호와이심이 본문에 다양하게 드러난다.²⁸ 이외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고 벌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나병으로 번역되는 **צָרַעַת**(צרעת, 나병)도 전염병의 일

27 Simon DeVries, *1 Kings* (WBC 12; Dallas: Word Books, 2003), 126.

28 John Goldingay and Kathleen Scott Goldingay, “Thinking With the Old Testament about the Pandemic”, 192.

중으로 여호와께 불경했던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를 구하는 일로 화가 나셨고 미리암을 짜라트로 치셨다(민 12:10). 나아만 장군이 짜라트로 인하여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은 이야기(왕하 5:9-14)나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마음에 욕심을 품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짜라트로 혼이 난 사건(왕하 5:27)도 있다. 또 제사장에 반목하여 화를 냈었던 웃시야 왕이 짜라트로 여호와와 벌을 받기도 하였다(대하 26:16-21). 이러한 본문들의 설명에 의하여 성서에서 전염병이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내리시는 벌로서 이해하며, 오경 문서와 예언서 그리고 포로 후기 문서에까지 지속해서 일관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벌로서의 전염병 본문의 예

출애굽기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민수기 14:12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 를 이루게 하리라
예레미야 44: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역대상 21:14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칠만 명이었더라

전염병 발병의 행동 주체로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대부분의 현대 성서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실천신학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책략으로서의 병은 교회에서 “병마와 싸운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듯이 병이란 육체적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의미하기도 하였고 항상 하나님
이 발병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2) 자연 현상으로서의 전염병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출애굽기와 역사서 본문들을 중심으로 하나
님의 심판 혹은 징벌로서의 본문들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전염병 본문
중에서 레위기 본문(레 13-14), 역대하 본문(대하 6)과 시편 본문(시 91편)
도 자연 현상으로서의 전염병을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오히려 생태
학적 접근으로써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더욱 깊
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벌로서 나타나는 전염병과 달리 레위기 13
장의 규례들에 대한 해석은 전염병을 분류하여 자연 현상에 의한 발병
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전염병이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나 징벌이라면 이 심판과 징벌은 변경 없이 행하여져야 하며, 이러한 징
벌은 일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벌로서 당사자가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
닫고 이해하는 실천적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보는 외부인들에게 교육적 신앙적 지도의 역할로서 전염병이라
는 심판을 통해서 죄인이 어떠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
고 듣고 알아 다시 이러한 죄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에스겔 28장 23절은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
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옆
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라고 전달하며 전염
병의 결과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적 능력과 처벌에 대한 확증을 나타낸
다. 특별히 성서 본문은 이러한 수사학적 의도를 가지며 전염병이 개시
된 고대의 때나 현재 독자가 성서 본문을 읽을 때 독실한 야웨 신앙 지

도를 그 목적으로 함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전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규례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서 본문은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시일을 두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또 치료하는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²⁹ 이러한 병증을 파악하는 일과 치료에 관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로서의 전염병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을 시사하며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레위기 13장 2절에 등장하는 나병은 “נֹגַע צִרְעָתָה”로서 짜라트는 피부병을 그리고 네가는 온역을 뜻하므로 피부의 전염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 70인역에서는 짜라트를 λέπρα로 번역하였고, 이는 나병이나 문둥병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피부병 대부분에 사용되었다.³⁰ 어떤 사람에게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고(בְּעוֹר־בְּשָׂרוֹ שֵׂאִתָּה) 그것이 피부 전염병과 같은(לְנֹגַע צִרְעָתָה) 모양이면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상을 파악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하고 환부의 털이 하얗지고 우묵하면 나병으로 부정하다 하고, 털이 희지 않고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레 동안 가두는 조치를 한다(בַּעַת יָמִים) **בַּעַת יָמִים תִּשְׂמַר אֶת־הַנֹּגֵעַ** **וְהִסְגִּיר הַכֹּהֵן אֶת־הַנֹּגֵעַ**.³¹ 여기서 가두는 행위는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인데 이후 나병이 확정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 환자를 가두어 계속 진찰을 하게 되고 환자가 나올수 있도록 다양한 처리를 한다.³² 레위기 13장에 가득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염병에 대한 조치와

29 John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2002).

30 윗글, 187. 스위니는 이 병의 증세가 한센병과 달라 다른 피부 질병으로 이해하며,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임에는 확실하다는 것이다. Marvin Sweeney, *Tanakh: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114.

31 나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Hartley, 윗글, 187.

32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

치료 그리고 공동체의 처신에 대해서 지도하는데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는 이 전염병은 곧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가 전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는 전염을 막기 위하여 금고를 명하여 격리시키고 옷을 빨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전염병 방역을 실시한다. 더불어 레위기 14장에서는 그 질병이 고쳐진 후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전달하는데 14장 1절에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57절에 이르는 긴 설명이 있고 이 명령은 여호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본문이 전제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전염되어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나 전염병에 대한 처리를 해석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전염병이 여호와의 벌로 내려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피부에 생긴 나병을 전염병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다른 본문으로 열왕기하 15장이 있다. 고대 근동에서 나병을 여호와의 벌로서의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해 격리하는 것을 강조한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심판으로서 유다 왕 아사랴가 지은 죄로 인해 나병환자로 평생 살게하는 벌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는 별궁에 따로 거하였다.

וַיִּנָּע יְהוָה אֶת־הַמֶּלֶךְ וַיְהִי מִצָּרַע עַד־יוֹם מוֹתוֹ (왕하 15:5)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왕하 15:5)

나병은 때로는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징벌로서의 전염병으로 사

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레 13:5)

용되고 있으나 같은 나병이 레위기에서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본문이 설명하는 전염병에 걸렸을 때 후속 처리에 관한 내용이 암시하는 것은 전염병의 주체가 하나님의 징벌로서가 아닌 자연 현상으로서의 질병이다. 이러한 본문이 전제하는 것은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2) 치료를 위해 제사장이 수고하고 애쓴다. 3) 치료가 끝나면 즉 부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면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단계의 격리는 결국 하나님이 저주나 심판으로 병을 주었으면 할 필요가 없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로, 역대하 6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도 중요한 본문이다. 솔로몬은 이미 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며 구원의 기도를 드린다.

- 6:28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גִּדְוָה)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צָרָה)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 6:29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 6:30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 6:31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생기고 이를 통해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주께 간구를 한다는 것은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일어날 재

양을 망라하고 다양한 곤충과 동물 사람에 이르는 전염병에 대해서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뜻한다.³³ 솔로몬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의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선하면 선한 대로 구원하시고, 악하면 그대로 고통받게 내버려 두기를 요청한다. 더불어 31절에서는 죄를 지은 자는 고통당하고 선한 자는 구원을 받을 때 이후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설명한다. 이 기도의 중심 내용은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전염병이 있을 당시에 이 전염병을 초래한 징벌 받아야 할 인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한 자들에게도 전염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성서 본문은 전염병과 한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인간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한 때에도 전염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된다.

셋째로, 시편 91편 3절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מִדְבָּר)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리고 시편 91편 6절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מִדְבָּר)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로 시편 기자는 전염병에 대해서 발병의 주체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는 해석을 담은 표현을 한다.

כי הוא יצילך מפח יקוש מדבר הוות (시 91:3)

לאֲחִירָא מִפַּחַר לְיָלֵהּ מִחֵץ יְעוּף יוֹמָם מִדְבָּר בְּאֶפֶל יִהְיֶה (시 91:5-6)

מִקָּטָב וְשׁוּר צְהָרִים

33 Raymond Dillard, *2 Chronicles* (WBC 15; Dallas: Word Books, 2002), 50.

시편 91편 2절에서 여호와와 요새이자 피난처로 등장하며, 사냥꾼의 울무와 극심한 전염병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호와를 위험을 주는 사냥꾼으로 혹은 전염병의 발원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절에서 여호와는 이러한 상황을 전복시키는 자 곧 내가 믿는 자(אֱלֹהֵי אֲבוֹתַי)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미 전염병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징벌로써 혹은 자연적 발병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해석을 나타낸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전염성이 강한 병은 다른 주석자들에 의하면 악령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스털리(William Oesterley)는 악령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며, 피터스(John Peters)와 모빙클(S. Mowinckel)은 악령에 의하여 공격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의식으로 이해한다.³⁴ 그리고 바빌론 탈무드에서도 이러한 시편을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노래로 혹은 전염병에 대항하는 노래로 이해한다(Shebuoth 15b).³⁵ 그러므로 다른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 시편을 악에 대한 예전적 장르의 시편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전염병은 악한 영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혹은 자연적 발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염병의 원인은 다양하며 구약 성서는 모든 병의 원인을 사람의 죄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김선종은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정결의 실천으로 창조 질서의 유지와 회복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나 부

34 George Buttrick, *The Interpreter's Bible: Psalms Proverbs* (IBC 4;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493-494.

35 윗글, 494.

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³⁶ 또 욥이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그의 세 친구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를 추궁하고 있지만 욥기의 서언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욥 1:1, 8; 2:3)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³⁷

4. 전염병에 대한 구약 해석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 방식 제안

이전 연구의 해석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교육에 민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교회 리더쉽의 어려움을 맞고 있기도 하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오히려 상반된 주장으로 인하여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다. 성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의 해석을 깊이 있게 다룸과 동시에 세상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공동체를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코로나19는 이 세상을 혼란에 빠트렸다. 그러므로 이제 성서학자가 공동체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교육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전염병의 위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때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구약 해석은 심히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위협 요소로 간주하거나 전염병을 나르는 매개체로 인식하여 관계의 단절과 자기 보호가 극심하여졌다.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불화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블루를 대

36 김선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교회: 레위기의 정결법(레 11-15)을 중심으로”, 2022년 한국기독교학회 51차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 (2022년 10월), 65.

37 윗글, 70-71.

치할 실천 신학적 방안들을 위해 올바른 성서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전 국가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이때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약학적 해석을 제안하여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막고 공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전염병에 대한 발병 원인 해석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으로 플립드 러닝을 제안한다. 플립드 러닝은 연구의 목적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클래스 안에서만 교육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전, 클래스 중, 클래스 후로 나뉜 교육의 확장으로 현 비대면 교육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육 방법이다.

플립드 러닝에 대한 소개와 적용은 2004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두 명의 교사가 수업에 결석하는 학습자들이 교육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플립드 러닝 방법을 시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 교육 방식은 2015년도부터 다양한 사례와 모델들의 평가가 일반 교수법 연구에서 제시되었다.³⁸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온라인 학습의 증대가 이루어졌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플립드 러닝의 방법론이 주목을 받았으나 이쉽게도 신학 분야에서는 그 적용 연구를 찾기가 어렵다. 초기 플립드 러닝의 방법론은 결국 가르치는 교사와 수동적으로 배우는 학습자들의 구조에서 이전과 달리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콘텐츠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실 밖에서 지식 함양과 적용이라는 과제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방식이다.³⁹ 학습자들은 선

-
- 38 서미옥, “혼합연구를 통해 본 플립드 러닝의 영향과 인식”, 『교육공학연구』 제32권 3호 (2016), 535-570; 윤소라, “새로운 교수법, 플립드 러닝의 관리회계 수업에의 적용 사례”, 『회계저널』 제28권 1호 (2019), 259-284; 조희정, “플립러닝과 핑퐁 앱을 활용한 대학 수업 방안 탐색”, 『실천유아교육』 제22권 1호 (2017), 1-19.
- 39 자세한 플립드 러닝 학습의 기독교 교육 적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박은혜,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의 기독교 교양 수업에의 적용 사례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0집 (2017), 351-384.

행 학습을 통해 개념을 익히고 발전된 질문을 가지고 교실로 오며 그룹 토의와 토론으로 적용하여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블룸의 교육 분류법(Bloom's Taxonomy)으로 비교하면 결국 학습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탈피하고 전문적 사고와 이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⁴⁰ 그의 학습 모형 분류에 따르면 모든 학습 단계는 지식(knowledge)-이해(comprehension)-적용(application)-분석(analysis)-통합(synthesis)-평가(evaluation)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가 상향될수록 학습자들은 더 발전된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 위에서 다룬 전염병 본문의 분석을 블룸의 학습 단계로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블룸의 교육 분류법에 따른 접근을 전염병 연구에 적용한 사례

지식(knowledge)	구약 성서에서 전염병이란 무엇인가?
이해(comprehension)	전염병을 언급하는 다양한 성경 본문 사례 열거
적용(application)	전염병 본문의 여러 정황에 대한 이해
분석(analysis)	전염병 본문의 주체, 화자, 의도 종합 분석
통합(synthesis)	각 본문들의 비교 및 교차 대조
평가(evaluation)	연구 자료들에 대한 종합 평가

즉 플립드 러닝 교육 방식은 설명(지식), 이해, 적용, 분석 단계를 교실 밖에서 학습하고, 통합과 평가를 교실 안에서 다양한 그룹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습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상승시키는 교육법이다. 더불어 학습자는 구약 성서에서

40 Benjamin Bloom,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Book 1 Cognitive Domain* (Boston: Allyn and Bacon, 1956).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한 본문들을 읽고 지식과 이해 그리고 적용에 관련된 학습을 자기 스스로 먼저 하기 때문에 수업에 필요한 선교육을 마치게 되며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높은 단계의 사고와 이해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한 구약적 해석연구를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교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구조화할 수 있다.

플립드 러닝 교수 방식 적용 제안

교수 단계	주 제	활용 방법
교실 수업 전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변화)	수업 콘텐츠 선정과 목적 설명	참고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 사용
	성서 본문 읽기 및 상황 나누기	연구에서 제시한 성서 본문들의 정독과 해석
	본문에 대한 수사학적 질문과 분석: 화자, 청자, 의도, 메시지	시청각 자료 내용 정리 및 개인별 수사학적 분석 작성
교실 수업 중 (활동을 통한 학습자간 상호작용)	그룹 토의/전체 토론	퀴즈를 중심으로 피어 리뷰, 이야기식 토의, 그룹 발표
교실 수업 후 (개별화된 이해 심화)	스스로 답하기/발전된 질문	온라인 피어 피드백, 토론 SNS, 교수자 리뷰

이러한 플립드 러닝 교육 교재의 논지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손쉽게 성서학 연구를 유튜브 동영상 혹은 비대면 교육자료에 대입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미 효율적인 플립드러닝을 통한 e-PBL 교수 학습 모형 연구가 완성도 있게 제시되고 있다.⁴¹ 간학문적 연결로서 학

41 주길홍, “효율적인 플립드러닝을 위한 e-PBL 교수학습모형 연구”,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3권 1호 (2015. 01), 47-53; 이혜정, 임상훈, 강수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습자 중심 패러다임(Learner-centered paradigm)을 위한 수업 설계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성서 본문 연구가 학문적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교수, 학습 설계에 대한 실천적 모델까지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학습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를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 중이며 이러한 도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성서학 플립드 러닝 지도자 교육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⁴² 지도자들이 이러한 교육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플립드 러닝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먼저 플립드 러닝 클래스를 이해하고 온라인 자료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2) 더불어 유연한 평가 방식으로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참여도를 상승시켜야 하며 3) 특별히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 교재 개발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교육 방법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참가자가 얻게 되는 것은 단지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구조화하여 훨씬 효과적인 교육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5. 나가는 글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문적 기여로서 구약 성서학에서 다

혁신 방안 탐색: 미네르바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5(2) (2019), 59-84.

42 허난, “예비수학교사교육에서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제29권 2호 (2015), 197-214; 조영재, “대학 교수자를 위한 플립드 러닝 수업설계 가이드 개발”,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11) (2019), 335-350.

루어야 하는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전염병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징벌적 해석과 자연 현상이라는 이해 그리고 실천적 대응 강조라는 접근들 사이에서 어려운 줄다리기 해석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이 고난을 대항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생태학적 견지 활용법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육 개발 자료를 위한 논지 구조를 정하여 학문적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도자 교육 교재 개발에 이바지한다.

둘째, 사회적 기여로서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크게 기여하며 이를 통하여 더 나아가 공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위한 지도를 할 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가 팬데믹 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게 친환경 뉴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성도들의 개인적 신앙 정립을 위한 해석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며 향후 공교회의 역할 감당에 효과적인 가이드를 줄 것이다.

셋째, 교육적인 후속 연구와의 연계 활용 방안으로 플립드 러닝 교육 교재를 위한 구조와 확장을 마련하도록 이바지한다. 본 연구는 성서학과 교회 지도자 간 연구를 위하여 방법론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개발로 나아가도록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플립드 러닝 교재를 위한 동영상과 자료 개발을 위하여 준비된 틀에 의하여 창의적인 자료가 예상되고 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학문적 논지를 잃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중요한 때에 본 연구의 주제는 전문적인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파생되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통찰력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다.

넷째, 성서적 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을 위한 대중성의 교량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쌓이는 결과물은 학문적,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간학문성을 띄고 있다. 성서학이 지닌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성경 연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켜 신실한 신앙인,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 (2021), 216-256.
- 김선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교회: 레위기의 정결법(레 11-15)을 중심으로”, 2022년 한국기독교학회 51차 정기학술대회 구약분과 발표 자료, (2022년 10월), 60-73.
- 김영옥,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전염병(COVID-19)”, 「신학지남」 제87권 3집 (2020년 12월), 197-215.
- 권중술, “코로나19 확산은 하나님의 심판 … 일부 개신교 목사들 설교 통해 유언비어 유포”, <https://www.vop.co.kr/A00001470205.html> (2020.12.13.).
- 권진구, “전염병, Covid-19, 그리고 기독교 영성”, 「기독교교육논총」 63집 (2020년 9월), 65-89.
- 넘버즈,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http://mh_data.or.kr/bbs/board.php?bo_table=newsdata&wr_id=60, (2021.01.10.).
- 마크 호닉스바움, 「대유행병의 시대: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제효영 역), (서울: 커넥팅, 2020). 원저 Honigsbaum, Mark, *The Pandemic Century: A History of Global Contagion from the Spanish Flu to Covid-19* (London: W.H. Allen, 2020).
- 박경수, 이상억, 김정형,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 박은화, “비대면(untact), 미국인들도 사용할까?”, <http://www.newsuwon.com/news/>

articleView.html? idxno = 14115, (2020,12,18).

- 박은혜,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의 기독교 교약 수업에의 적용 사례 연구”, 「기독교 교육논총」 50집 (2017), 351-384.
- 서미옥, “혼합연구를 통해 본 플립드 러닝의 영향과 인식”, 「교육공학연구」 제32권 3호 (2016), 535-570
- 소강석,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의 미래」 (서울: 쿠탄 출판사, 2020).
- 신형섭, 박재필, 김성중,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 교육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 안명준 외,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도서출판 다함, 2020).
- 연합뉴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 설교한 목사, 한달 후 확진 판정”, <https://www.youtube.com/watch?v=0sb1uZK4eR4>, (2021.2.20.).
- 윤소라, “새로운 교수법, 플립드 러닝의 관리회계 수업에의 적용 사례”, 「회계저널」 제28권 1호 (2019), 259-284
- 이상명 외,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서울: 동연, 2020).
- 이혜정, 임상훈, 강수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안 탐색: 미네르바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5(2) (2019), 59-84.
- 임효명, “생태 위기 시대에 성서 읽기: 스바냐의 아웨의 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372-401.
- 장명성,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 idxno = 300085> (2020.12.13.).
- 정지홍,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심판 아니다. 지금은 겸손을 배워야 할 때”, <http://www.christianreview.com.au/6735>, (2020.8.15.).
-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 출애굽기·레위기 2」 (서울: 성서아카데미, 1999).
- 주길홍, “효율적인 플립드러닝을 위한 e-PBL 교수학습모형 연구”, 「융복합지식학회 논문지」 3권 1호 (2015.01), 47-53.
- 조성훈, “신종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 목사 설교에 교회도 비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012194641855&VNC_T (2021.2.12.).
- 조영재, “대학 교수자를 위한 플립드 러닝 수업설계 가이드 개발”,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11) (2019), 335-350.
- 조희정, “플립러닝과 핑퐁 앱을 활용한 대학 수업 방안 탐색”, 「실천유아교육」 제22권 1호 (2017), 1-19.
- 최승현, “익산천광교회 안홍대 목사, 평소 ‘중국인 입국 금지 왜 안 하나’ 비판하며

- 현장 예배 지속”,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03> (2021.12.21.).
-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 허난, “예비수학교사교육에서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제29권 2호 (2015), 197-214.
- Bloom, Benjamin,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Book 1 Cognitive Domain* (Boston: Allyn and Bacon, 1956).
- Brett, Mark and Susan Hylen, “Biblical Studies in a Pandemic”, *JBL* 139, no. 3 (2020), 597-599.
- Buttrick, George, *The Interpreter's Bible: Psalms Proverbs* (IBC 4;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 Cherney, Kenneth A., “The Plague Narrative(Exod 7:8-10:29): Structure, Source Criticism, and Naturalistic Explanations”, *Wisconsin Lutheran Quarterly* 116 no. 2 (2019), 83-92.
- DeVries, Simon, *1 Kings* (WBC 12; Dallas: Word Books, 2003).
- Dillard, Raymond, *2 Chronicles* (WBC 15; Dallas: Word Books, 2002).
- Goldingay, John and Kathleen Scott Goldingay, “Thinking with the Old Testament about the pandemic”, *Theology* 123 no. 3 (2020), 191-197.
- Gonzalez, Catherine Gunsalus, “Christians’ Responses to Plagues: A Glimpse at the History”, *Journal for Preachers* 44 no. 1 (2020), 15-21.
- Hartley, John,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2002).
- Hidalgo, Jacqueline M., “Scripturalizing the Pandemic”, *JBL* 139 no. 3 (2020), 625-634.
- Hudson, Michael and Marc Van de Meiroop, eds., *Debt and Economic Renewal in the Ancient Near East* (Baltimore: CDL, 2002).
- Nam, Roger S., “Biblical Studies, COVID-19, and Our Response to Growing Inequalit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9 no. 3 (2020), 600-606.
- Reperant, Leslie and Albert Osterhaus, “AIDS, Avian flu, SARS, MERS, Ebola, Zika... what next?”, *Vaccine* 35 (2017), 4470-4474.
- Robertson, Warren, *Drought, Famine, Plague and Pestilence: Ancient Israel's Understandings of and Responses to Natural Catastrophes*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4).
- Stiglitz, Joseph,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 Future* (New York: Norton, 2012).
- Sweeney, Marvin,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Wenham, Gordon, *Genesis 1-15* (WBC 1; Dallas: Word Books, 1987).
- Williams, D. T., "The Sword, Famine and Pestilence: Expectation of Health and Prosperity in the Prophets", *Old Testament Essays* 21, no.1 (1988), 1-19.
- Wright, Tom, *God and the Pandemic: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Coronavirus and Its Aftermath* (Grand Rapids: Zondervan, 2020).
- Zhang, Ying, "Reading the Book of Job in the Pandemic", *JBL* 139 no. 3 (2020), 607-612.

검색어

코로나19, 성서적 전염병, 생태신학, 플립드 러닝, 지도자 교육

[ABSTRACT]

Biblical Exegesis on Covid-19 in Search of Flipped Learning Resources for Church Leaders

Kyung-Sik Park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an important biblical exegesis on Covid-19 to answer the question, “Why do we suffer from Covid-19?” In general, there is a discussion that on one hand, diseases such as Covid-19 are God’s punishment to those who did not obey God’s instruction. On the other hand, then, why are sincere Christians suffering from it? Biblical exegesis should indeed offer a clear and compelling understanding of pandemic diseases so that all church communities share the insight the Bible delivers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leadership to contribute to public churches. Churches should maintain an important role to faithfully help congregation members and societies that they participate during the suffering time by Covid-19.

This study insists that there are different biblical cases of the outbreak of disease and that Covid-19 is active now not because we are all sinners. We must understand the natural phenomenon in the sovereignty of God.

Church leaders have to educate their congregation members. In particular, flipped learning raised by new education classes is an effective way to deliver biblical knowledge by using, for example, some media sources in the pre-stage, discussion in the mid-stage, and feedback in the final-stage. Covid-19 clawed us painfully but we must be healed and

www.kci.go.kr

stepped up into the new-normal world which overcomes the pandemic disease and its outcomes.

Keywords

Covid-19, Biblical diseases, Ecological theology, Flipped learning, Leader education

투고일: 2022년 10월 14일

심사일: 2022년 11월 19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9일

www.kci.go.kr